

# 라 스칼라(La Scala)와 오선지

## La Scala and manuscript paper

이흥렬 | 포토그룹(PhotoGroup) 대표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Teatro alla Scala)’

이탈리 밀라노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극장이다.

1778년 밀라노를 지배하던 오스트리아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명에 따라 세워진 극장으로 ‘살리에리(Salieri)’의 오페라 ‘에우로빠 리코노슈따(Europa Riconosciuta)’가 개관공연으로 초연되었다.

이탈리아 유학시절, 학교에 가려면 이 근처를 지나야 했고, 당시 가난한 유학생의 신분으로는 비싼 관람료가 부담스러워 그저 공연 끝나고 우르르 몰려나오는 모피 입은 부인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에서 공연하게 된 한 오페라 가수를 취재차 만났고, 본인의 공연사진을 몇 장 찍어 달라는 개인적인 의뢰를 받았다. 공연이 끝나고 촬영한 사진을 확대해주니 ‘필름 값이나 하시라고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단돈 몇 만원을 내밀었다. 그때 이렇게 답했었다. ‘작곡가가 오선지 값 받고 작곡합니까? 그냥 넣어두시죠.’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름의 항변이었지만 그 가수는 무안했을 것이다. 굳이 변명해야 한다면, 혈기 넘치는 젊은 시절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라 스칼라극장이 단순히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명에 따라 저렇게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물론 시작은 그러했지만, 설계와 공사를 시작하면서 내 작품이라는 자부심과 그 건물의 아름다움을 위해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열정이 없었다면 저렇게 만들지는 못했으리라. 다른 위대한 건축물도 마찬가지이다.

필름 값이나 오선지 값, 시멘트와 철근값이 아닌 지식이나 열정, 예술성 등 무형의 것들에 대해 적절한 값어치가 인정되는 사회를 꿈꾼다. 또한, 사진가는, 작곡가는, 그리고 건축사는 들어간 재료만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 무형의 높은 가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D-800이라는 3,600만 고화소 디지털카메라가 새로 나왔다. 당연히 사진계의 화젯거리다. 필름을 사용하던 아날로그 사진 시대에는 새로 나온 필름을 사면 화질이 좋아졌다. 디지털 시대에는 비싼 카메라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창조적인 건 둘째 치고, 디지털이라 필름 값이 안 들었으니 오히려 사진가격을 깎아달라는 분들에게 카메라 가격을 어떻게 부담시킬까가 당장 고민거리이다.

어쩌면 ‘라 스칼라’가 세워진 2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뒤늦고 창조적 예술가는 배고픈 시대인지도 모르겠다. 📷

필자는 사진가이자 미디어 아티스트(Media Artist)로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밀라노의 Istituto Europeo di Design 사진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포토그룹(PhotoGroup)의 대표이다.

